

# “남북 철도 연결·금강산관광 재개... ‘평화경제’ 활성화”

문 대통령 신년사 무슨 내용 담겼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핵심 화두 중 하나로 다시 한번 '평화경제'를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해 남북철도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라는 뜻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경제 번영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결국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소강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타개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 관련 남북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작동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경지역 협력'을 비롯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사실상 '평화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들로 제시했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은 현 정부가 구상하는 '평화경제' 핵심이다. 환동해권과 환서해권,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만든다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악화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

北 호응 여부는 미지수

부동산 대책 고강도 규제 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노력'을 강조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의 틀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강조 배경에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비핵화 대화와는 별개로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평화경제 구상이 대북제재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사업만 해도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대북제재로 막히면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 여부도 미지수다. 북한은 금강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공조' 이탈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8·2 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으나 앞으로는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내용은 짧지만 매우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

그동안 강력한 대책을 쏟아낸 정부는 앞으로는 시장 상황이 투기세력으로 인해 혼탁한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 당장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를 더욱 조이는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추미애·윤석열 '35분' 비공개 상견례 장관 개혁 협조 당부에 총장 "적극 공감"

인사 논의는 별도로 할 듯

법무부·대검 "통상적 예방"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두 사람이 임박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재해 인사와 덕담을 주고받는 통상적 예방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법무부 방문은 법무부 외청장·산하기관장들의 취임 인사 형식으로 이뤄졌다. 상견례는 오후 4시부터 약 3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무부에서 김오수 차관과 이성운 검찰국장, 대검에서 강남 일차장검사 등이 배석했다.

윤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 논의했다', '검찰 구성원들 소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다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추 장관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가 오후 3시에 법무부 청사로 돌아가면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취임 인사 차원이지만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 청사 앞에 취재진 60여 명이 모였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이례적으로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총장의 예방 일정을 공개했다. 법무부와 대검의 수직적 관계를 부각하려는 것이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만나 상견례를 해왔지만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

대화가 30분을 넘기면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오후 5시20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 예방이었고, 새해 인사를 비롯해 덕담 및 환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 가량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왼쪽 사진).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이나 관련된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역시 상견례와 별도로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은 검사 인사 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기에 한 차례 더 만날 것으로 보인다. 법

## 인천 연수 송영길·서울 광진 이광재 여론조사...대진표 고민 민주, 중진 험지 투입·영입인재 10명 지역구 배분 등 검토

다음 주부터 핵심공약 발표

'청년' 주제 공약 첫 순서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중진 험지 투입과 영입인재 지역구 배분 등 4·15 총선 출마자 배치를 위한 '퍼즐 맞추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7일 "당 전략기획위원회에서 이례한 대표와 상의하면서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돌리는 여론조사가 공천과 직결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경쟁력을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 을에서 최근 4선 중진 송영길 의원을 출마 후보군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험지'로 꼽히는 이 지역에 인천시장까지 역임해 인지도가 높은 중진인 송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당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 을에서는 최근 사면된 이광재 전 강원

지사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지사가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면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내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본인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강원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두 곳이 비게 된 경기 고양에서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한준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두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장의 경우 김 전 대통령이 일산에 살았던 인연 등으로 고양 출마 가능성이 타진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입인재 10여명을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에 내보내는 것도 유력 검토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6~7석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입인재들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병주 전 육군대

장은 강원 강릉,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는 전남 순천 출마 가능성이 입길에 오른다. 조만간 영입인재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이수진 전 판사는 경기 고양과 함께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 을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총선 공약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진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필수 핵심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카테고리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했으며, 가장 처음으로 발표되는 공약 카테고리는 '청년'이 될 예정이다. '청년' 카테고리 공약으로는 청년신도시와 모병제 도입 공약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